선재 스님이 차린 '청년 밥상'

6월 16일, 서울 연화사 공양간
조계종 복지재단 '청년밥심'
120명 공양…스님들 직접 배식
음식 속 '생명 존중' 의미 강조

이현희 기자 hyeonhae@hyunbul.com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과 연화사 주지 묘장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 등이 6월 16일 연화사에서 열린 '청년밥심'에서 학생들에게 배식하고 있다.

"한 방울의 물에 온 우주의 생명이 들어 있고, 하나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2'에 출연해 사찰음식을 대중에 알린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이 이번에는 청년들에게 사찰음식에 담긴 의미를 알렸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이 운영하는 '청년밥心'의 1학기 마지막 배식이 6월 16일 서울 경희대 인근 연화사에서 열렸다. 이날 청년밥심에는 선재 스님과 대표이사 도륜 스님, 연화사 주지 묘장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이 배식에 동참했으며, 평소 정원(100명)보다 많은 120명의 학생이 공양에 함께했다.

이날 '흑백요리사 2'에서 많은 호응을 받은 선재 스님의 당근국수가 준비돼 학생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선재 스님이 사찰에서 직접 담근 간장으로 조리된 당근국수는 설탕 없이 당근 본연의 단맛을 맛볼 수 있도록 준비됐다. 이와 함께 죽순오이무침, 양배추흑임자무침, 참외무침, 과일방아화채 등 다채로운 음식이 차려졌다.

선재 스님은 먼저 "세대와 계층을 나누지 않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히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만들며, 복지재단의 나눔 활동에도 더 깊은 관심을 갖겠다"고 인사했다.

음식과 생명 존중의 관계를 설명하는 짧은 강의도 이어졌다. 스님은 "내 앞에 당근국수는 농작과 조리 등 사람의 손길을 거치는 것은 물론 뜨거운 햇빛과 거친 비바람을 견디며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우주의 생명을 거쳐 내게 오게 된 것임을 안다면 아무 생각 없이 '꿀꺽' 하고 먹을 수만은 없다. 먹을 때 잠깐이라도 자연의 소중한 생명을 떠올렸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120명의 학생들이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찰음식의 가치를 되새기며 공양하고 있다.

'잘 먹는다는 것'의 의미도 짚었다. 스님은 "잘 먹는다는 것은 우선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이 자연에서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교는 나만을 위한 음식을 추구하기보다 자연의 생명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우리가 먹는 음식과 자연 속 생명은 다 연결돼 있다는 관계를 배울 때 '먹는다'의 진정한 의미를 헤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식 봉사자로 나선 선재 스님과 도륜·묘장 스님 등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학생들에게 직접 나누며 응원을 건넸다. 학생들도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찰음식의 가치를 되새기며 공양했다. 조민수(28·경희대) 학생은 "매일 밥을 먹다보면 음식의 소중함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만드신 분의 노고를 생각하게 됐다"며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먹을 생각"이라며 웃어보였다.

사찰음식은 외국인 입맛도 사로잡았다. 템플스테이를 경험하며 사찰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 레나타(29·한국외대) 학생은 "브라질에서는 주로 고기와 콩을 먹는데 사찰음식은 나물과 과일까지 함께 먹을 수 있어서 좋다. 또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이라 더 찾게 되는 것 같다"며 "특히 참외로 반찬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사찰음식을 먹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퀴어 축제서 오색 팔찌 나눔…"차별·혐오 종식"

6월 13일, 서울 남대문로 일대서
조계종 등 70개 부스, '평등' 기원

"걸림 없이 자유롭게 사세요." "오색 팔찌보다 본인이 더 예뻐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에 나섰다.

사노위는 6월 13일 서울 남대문로 및 우정국로 일대에서 열린 '제27회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성소수자들의 자유·행복과 평등 세상을 기원했다. 부스 진행은 사노위 소속 스님들과 성소수자 불교 모임 '불반' 관계자가 함께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퀴어퍼레이드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서울퀴어퍼레이드는 올해 '교집합: 다름을 연결로'라는 슬로건으로 총 70개의 부스가 설치·운영됐다. 이날 주최 측이 추산한 축제 참여자는 17만명 이상으로, 지난해 15만명보다 많은 인원이 모인 것으로 확인된다.

뜨거운 햇빛 아래 축제를 찾은 이들의 모습에도 열기가 가득했다. 부스 체험을 위한 대기 줄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참여자들은 스님들이 운영하는 부스를 보고 "성소수자를 환대하는 불교가 대단하다"며 환호했다.

사노위 스님들은 '오색실 팔찌' 7000개를 준비해 참여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하며 정성껏 팔찌를 묶어줬다. 다섯 가지 색이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고 있는 팔찌처럼, 우리 사회도 다름을 있는 그대로 보고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자는 염원을 담은 것이다.


조계종 사노위 부위원장 시경 스님이 참여자에게 오색 팔찌를 묶어주고 있다.

모든 존재의 존귀함을 역설한 위원장 지몽 스님은 "오색 팔찌에는 부처님의 자비 정신이 담겨 있다"며 "제각각 생김새와 생각은 다르지만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강조했다.

오색 팔찌를 받은 참여자들도 감사를 표했다. 성소수자 친구들과 함께 온 으애(활동명·16·서울) 씨는 "올해 처음 퀴어 축제를 찾았는데, 다같이 오색 팔찌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따뜻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오색 팔찌를 받고 눈물을 보인 참가자도 있었다. 김수민(35·서울) 씨는 "스님들이 모든 사람에게 진심 어린 말 한 마디를 건네는 걸 보니 울컥한 마음이 들었다"며 "불교계가 나서 격려하고 챙겨주는 것을 보니 불교에 대한 신심도 생길 것 같다"고 기뻐했다. 부스 체험 이후 참여자들은 종각역에서 출발해 명동성당을 거쳐 을지로입구역까지 함께 행진하며 마음을 나눴다.

이현희 기자

로터스월드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미얀마 정수시설 7호…본뺀 사원학교에

재학생 포함 4000가구도 혜택
강금자 불자 세 번째 후원으로



국제구호 NGO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와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명우)이 함께 진행 중인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의 결실로 최근 미얀마 본뺀(Bone Pyan) 사원학교에 정수시설 설치가 완료됐다.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일곱 번째 정수시설로,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인근 마을 4000가구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미얀마 양곤 딴린 타운십에 위치한 본뺀 사원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학교에는 재학생 337명과 교직원 11명을 비롯해 거주 스님도 22명이 생활하고 있다.

본뺀 사원학교는 그동안 식수 부족과 수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우기에 빗물을 저장 탱크에 모아 침전 과정을 거쳐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오염된 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건강을 위협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로터스월드는 현지 조사와 협의를 거쳐 본뺀 사원학교를 지원 대상지로 선정했다. 특히 현대불교신문 독자인 강금자 코끼리부동산 대표가 550만원을 후원하면서 나눔에 동참했다. 강금자 불자는 지난해 3월부터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에 꾸준히 후원하며 이번이 세 번째 동참이다.

올해 4월 8일부터 진행된 정수시설 공사는 현지 주민과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지원은 특히 시설 설치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는 데 의미를 더한다. 미얀마는 최근 자연재해와 경제난, 사회 불안 등으로 위생 환경이 크게 악화되면서 깨끗한 식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도시 주변 빈곤 마을과 농촌 지역 주민들 상당수는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별도의 정화 과정 없이 섞인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묘띤자밋 학생(G7학년)은 "집에서는 이렇게 깨끗한 물을 자주 마시지 못했는데 학교에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 행복하다"며 "학교가 자랑스럽고 기부해 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로터스월드와 현대불교신문은 앞으로도 미얀마를 비롯한 식수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깨끗한 물은 생명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물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02-725-4277

후원계좌 : 기업은행 636-024138-01-015 (사)로터스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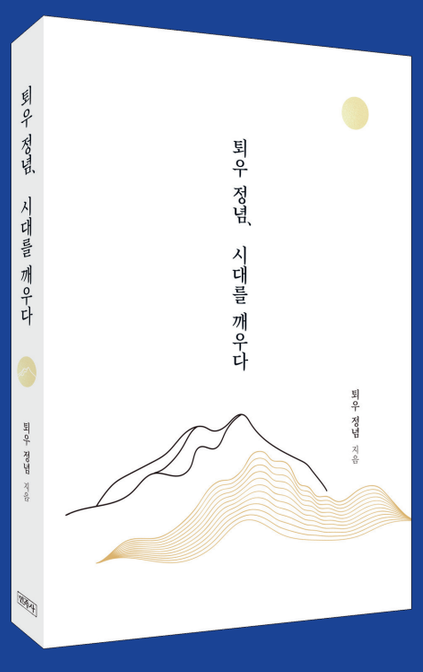
임은호 기자



7대 종교, 시민 마음에 귀 기울이다

한국종교지도자협회(공동대표의장 진우 스님 · 조계종 총무원장)는 6월 14일 서울 청계광장 일원에서 '마음 Knock, 생명 Talk' 국민마음회복 생명살림 캠페인을 개최했다. 캠페인은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에 공감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종교인들이 시민들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Talking and Listening' 프로그램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진우 스님은 "오늘 이 자리가 스스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 마음의 힘을 기르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퇴우 정념 지음 | 344쪽 | 18,500원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화엄의 세계관으로 읽는 AI시대 문명 철학서
"수행은 법당 안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완성된다"
"불교가 시대와 만나지 않으면 도태된다"



퇴우 정념 스님 저서 출판 기념회 2026년 6월 19일 오후 5시. 서울 앰베서더 풀만 호텔 (장충로 2가) 그랜드볼룸
민족사